

실업자의 재취업과 재취업 형태에 관한 연구

Weibull Survival Model과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한 분석

강철희·김교성*

이 연구의 목적은 실업자의 실업기간과 재취업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보다 바람직한 고용관련정책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보건사회연구원과 노동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1998년도 전국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를 Weibull 모델과 Logistic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전체 실업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연령, 가구 월 평균소득, 가구주 여부, 결혼 여부, 이전 직장의 규모, 실직사유 등의 변수가 실업자의 실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었고, 연령, 이전 직장의 직종과 근무형태, 고용보험가입 여부 등의 변수가 실업자의 재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실증적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불안정한 고용상태와 실업, 그리고 실업과 불안정한 재취업의 순환을 반복할 수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실업대책의 필요성을 논하면서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 강철희(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김교성(세종대학교 행정대학원 전임강사)

1. 서론

1999년 7월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6.4%로 그 비율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IMF 이후 발생한 대규모 실업사태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자리하고 있다. 실업문제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업자들이 재취업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과 실업기간 동안 실업자와 실업가구원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실업자의 실태 및 욕구와 재취업 현황을 보다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정책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지식적 기반으로 축적해야 한다.

국민 대다수를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일반 시민들과 거의 동일시될 수 있는 보험 수급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직과 재취업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실업과 재취업에 대한 방대한 지식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실업자의 일반적 특성과 재취업에 관한 실증적인 분석이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실업과 재취업에 대한 학문적이고 정책적인 지식의 형성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실업과 재취업에 대한 연구들이 간헐적으로 발표되고 있는데, 대부분 고용보험 수급권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용보험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그 여파가 보다 클 수 있는 일반적 대상, 즉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다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실업자와 관련된 삶의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취지에서 구축된 '1998년도 전국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일반 국민들의 실업 및 재취업과 관련된 삶의 현황을 보다 포괄적이고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물론 IMF 경제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관찰되는 실업자의 실업기간과 재취업 형태는 일반적인 상황과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지식화 작업은 실업 및 재취업과 관련된 현상에 대한 다양한 이해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동시에 현재 실직상태에 있는 일반 국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방향모색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기본적인 관심과 연구주제는 실업자의 재취업 양상, 재취업까지의 실업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재취업한 사람들의 취업 형태(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재취업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1998년도 전국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자료분석의 결과가 나타내는 정책적 의미를 논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의 관심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연구대상을 12개월 미만의 실업기간을 갖는 단기실업자와 그 이상의 기간을 갖는 장기실업자로 구분하였다. 이는 장기실업자 집단과 IMF 실업자로 명명할 수 있는 단기실업자 집단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함으로써 실업기간에 따른 차별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 연구는 위에서 언급된 연구의 관심 내용을 보다 정확한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모수적 생존분석 모델 중 하나인 Weibull 모델과 Logistic 회귀 모델을 활용하였다. 다만,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가 실업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을 가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변수들의 많은 정보가 입력되어 있지 않아(*missing*), 실업정책과 관련된 변수의 분석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점은 연구의 한계로 지적하고 싶다. 그러나 이 연구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적인 자료에 기초해 실업과 재취업에 대한 현상을 보다 정확한 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고, 이와 관련된 지식적 기반의 내용을 확대시켰으며, 실업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연구가 가지는 의미는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

2. 기존연구에 대한 검토

이 장에서는 실업기간 및 재취업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검토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직장탐색이론(Davidson, 1990; Lucas, 1972), 암묵적 계약이론(Bailey, 1974; Azariadis, 1975), 효율임금이론(Bulow & Summers, 1986; Allen, 1984), 내부자/외부자이론(Shaked & Sutton, 1984; Richardson, 1990), 이중노동시장이론(Rosenberg, 1989; Doeringer & Piore, 1971), 그리고 일자리 경쟁이론(Thurow, 1975) 등 실업과 관련된 주요 이론들에 근거한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이론들의 내용보다는 이에 근거한 실증적 연구의 결과만을 보고하기로 한다.¹⁾ 실업에 관한 대부분의 외국 선행연구들은 종적으로 축적된 자료에 기초하여 실업상태에서 취업상태로의 전환, 즉 재취

업까지의 실업기간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이나 실업 관련 프로그램들의 재취업에의 효과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실업과 재취업에 관한 자료의 축적이 쉽지 않았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갖는 실증적 연구들이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는 외국의 연구결과와 실업보험 수급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국내 연구결과들을 중심으로 정리할 것이다.

미국 노동통계청의 자료에 기초하여 실업자의 실직기간과 재취업에 관해 연구한 Yoon(1990)은 실업자들의 실직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취업 제의를 받기가 더 힘들어지고 결국 실업으로부터의 탈피가 보다 더 어려워지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Fallick(1991)은 위의 연구결과에 동의하면서, 실직기간의 장기화는 실직자들의 생산성과 인적 자본의 가치하락의 징표로서 그들에 대한 직업 제의는 점차 줄어들고 그 결과 사람들은 저임금의 직업을 수용하는 경향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실업이 장기화될 때 이러한 문제를 갖게 될 가능성이 보다 높으며, 실업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실직 후 가능한 한 빨리 재취업을 위해 노력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재취업의 확률은 실업보험 수혜기간의 마지막 부분에서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직급여를 받기 전과 받는 초기의 시점에서도 매우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경제 위기에 따라 고용시장이 축소되고 있고 동시에 고용보험이 수급자들의 안정적인 수준에서의 삶을 보장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한편,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이 안정적인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가들의 자료에 기초한 많은 연구들은 재취업까지의 기대 실업기간이 실업급여의 기간 및 급여 수준과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Bezil, 1995; Carling, Edin, Harkamn, Holmund, 1996; Classen, 1977; Holon, 1977; Katz & Meyer, 1990; Meyer, 1990). 이러한 연구들은 급여 소진의 시점에서 재취업의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spike 현상을 주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연구로 Meyer(1990)는 1978년에서 1983년까지 임금과 급여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Continuous Wage and Benefit History*)를 분석한 결과, 실업급여의 기간이 길어지면 일반적으로 급여가 소진되는 시점에 재취업의 확률이 급격히 높아짐을 보여주었다. 또한 캐나다의 노동력 자료(*Labor Force Data File*)를 기초로 연구한 Bezil(1995)도 재취업을 설명하는 데 실업급여 소진 가설이 매우 의미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1) 이론들의 주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리는 방하남(1998)을 참고할 것.

Katz와 Meyer(1990)도 소득구조에 대한 패널자료(*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를 기초로 실업급여 수급권자와 비수급권자를 비교한 결과,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람들의 경우 급여의 소진 시점에서 재취업률이 급격히 상승하나, 수급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그러한 상승이 없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재취업의 확률이 실업보험의 수급 여부 및 기간, 그리고 급여 수준 등과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실업보험의 수급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실업 기간과 재취업의 양상이 상당히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결과들은 안정된 실업보험제도를 갖는 사회에서의 결과일 뿐, 실업보험의 적용범위가 넓지 않고 경제적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직자들의 재취업 양상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재취업까지의 기대실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해보면, 우선 1984년부터 1992년까지의 실업자 조사 자료(*Displaced Worker Surveys: DWS*)를 기초로 연구한 Fairlie와 Kletzer(1998)는 인종에 따라 재취업 확률이 크게 다르며 이는 교육의 차이와 인종간 업종 분포의 차이 때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즉, 보다 낮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업종에 보다 많이 취업하고 있던 흑인의 경우, 취업 가능한 직종이 시장 환경의 요구와 함께 변화됨에 따라 재취업이 보다 어렵게 된다. 다시 말해, 실직 전 낮은 기술력을 요하는 업종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실직 후 재취업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한편 Meyer(1990)는 CWBH 자료에 기초한 연구를 통해 기혼, 높은 교육수준, 높은 임금, 낮은 실업급여수준 등이 재취업 확률을 높이고, 부양가족수 등의 변수가 재취업 확률을 낮춘다고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자. 1996년부터 1년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취업에 관해 연구한 방하남(1998)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대체로 낮고, 25세 미만 청년층과 고연령층의 재취업까지의 실업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1996년 7월 1일부터 1997년 6월 10일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한 대구, 경북 지역의 수급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류기철(1999)의 연구는 남녀 모두의 재취업 확률이 실직 후 8주까지 급증하다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연령은 여자의 경우에만 정적인 관계에서, 교육수준은 남성의 경우에만 정적인 관계에서, 전직장의 임금수준은 부적인 관계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갖는다고 보여준다. 또한 실업급여의 수급은 남녀 모두의 경우에 재취업 확률을 낮출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한편, 경제위기 발생 직전 시점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던 사람들을 대

상으로 한 강철희, 김교성, 김진옥(1999)의 분석은 연령, 성별(여성), 임금일액의 변수가 실업기간과 실업탈피율에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 이전 직장의 업종, 직종, 실직사유 등에 따라 재취업률이 상당히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급여 인정 주가 길수록 재취업까지의 기대실업기간은 늘어나며, 실업급여가 소진되지 않은 사람들의 기대실업기간이 소진된 사람들에 비해 짧다고 보고하고 있다.

재취업에 대한 실업프로그램의 효과와 관련하여, Burgess와 Low(1992)는 남성의 경우, 사전통보 프로그램이 재취업까지의 기간 단축에 영향을 끼치는 데 반해, 고용보험의 급여수준은 재취업까지의 기간과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Addison과 Portugal(1992)은 1988년 실업자 조사 자료(DWS)를 기초로 이전 직장에서의 퇴직에 대한 사전통보 여부와 재취업률을 연구한 결과, 사무직, 전문직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재취업까지의 실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반면,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던 사람들, 특히 노무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경우, 변수간에 별다른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에게는 전직을 위한 준비를 가능케 하는 사전통보 프로그램 등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별다른 효과가 없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취약한 직업 경력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뉴저지 주의 실업급여와 재취업자들에 관한 연구 자료(New Jersey Unemployment Insurance & Reemployment Demonstration Project)를 분석한 Anderson(1992)의 연구는 직업상담이 재취업까지의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임을 보고하면서 재취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실직 후 재취업한 사람들이 안정된 직장에 재취업했는지(정규직) 혹은 불안정한 형태의 직장에 재취업했는지(임시직이나 일용직과 같은 비정규직)의 여부와 그러한 차이를 예측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그 주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McCall(1997)이 캐나다의 1986년 실업자 조사 자료(DWS)를 분석한 결과, 재취업의 내용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성, 실업급여 수급, 결혼상태, 연령, 교육수준, 이직사유, 5세 미만의 아동 양육 여부 등을 변수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실직한 여성실업자의 경우 비정규직(임시직, 일용직: *part-time*)에 고용될 확률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정규직(*full-time*) 고용상태에서 실직한 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정규직에 취업할 수 없기 때문에 비

정규직에 취업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남성의 경우 실직 후 5개월까지 그리고 여성의 경우 실직 후 2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비정규직으로의 취업 확률이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비정규직 취업 확률보다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실직 후 1년 안에 재취업한 경우만을 조사했을 때는, 실직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비정규직 재취업률이 점차 증가하며, 이러한 결과는 실직 후 초기에는 정규직 재취업이 적극 고려되지 않으나 실업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양한 이유에서 그러한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Fallick(1991)의 연구도 실직을 당한 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정규직 고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 고용상태에서 일할 수밖에 없음을 보고하는데, 이러한 결과들은 비정규직 취업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혹은 경제 상황 등의 다양한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재취업의 내용(형태)을 분석하는 연구들은 소수만이 진행되어 그 결과의 일반화가 용이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은 실직 후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에서 상당 기간 동안 불안정한 취업을 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재취업까지의 실업기간과 실업기간을 예측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 결과 및 재취업의 형태(안정적 취업과 불안정한 취업)를 예측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 결과는 각 나라의 특수한 상황과 제도 배경 그리고 연구대상의 특성을 반영하는 가운데 보편적 내용 또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실업보험의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급여수급이 가능한 사람들이 매우 제한되어 있고 동시에 경제위기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놓인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재취업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파악하고 비교하는 중요한 준거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3. 연구방법

1) 자료

이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노동연구원이 1998년 9월 14일부터 10월 3일까지 공동으로 실시한 '1998년도 전국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이하 실업실태조사)로부터 구성된 것에 기초한다. 실업실태조사는 가구조사와 개인조사를 병

행했으나, 이 연구는 개인조사 자료를 기초로 분석자료를 구성하였다. 조사된 총 5,108명의 개인들과 관련된 자료들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이 연구에서 분석될 최종 자료로 구성되었다.

우선 이 연구는 IMF 이후 실업자와 재취업자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업실태조사의 연구대상 중 비경제활동가구원들에 대한 사례(총 305사례)는 모두 제외하였다.²⁾ 그런 다음 이 연구에서 중요한 변수로 사용되는 실직일과 재취업일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지 않았거나(*missing*), 모순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례,³⁾ 공공근로사업을 재취업한 것으로 명시한 사례, 그리고 실직일 전에 이미 재취업이 결정된 사례들은 모두 제외하였다(총 1,326개 사례 제외). 또 각 사례에서 변수의 내용이 일관적이지 않고 모순된 정보를 나타내는 사례들은 모두 제외하였다. 실업실태조사는 1997년 10월부터 1998년 9월까지 1년간 매달의 경제활동상태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는데 몇몇 사례의 경우 경제활동 상태의 정보와 실직일 혹은 재취업일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⁴⁾ 이 연구는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총 461사례)를 제외하였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 구성된 총 3,016명의 최종 사례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 변수

실업자의 재취업과 실업기간에 대한 분석의 종속변수는 연구대상의 재취업까지의 실업기간이다. 실업기간의 측정은 실직자의 실직 연도와 월로부터 재취업 연도와 월까지의 기간을 일(*day*) 단위로 변환하여 계산하였고, 1998년 9월을 단절시점(*censoring*

2) 실업실태조사의 개인조사는 실업가구원, 비경제활동가구원, 임금근로자가구원, 비임금근로자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업가구원이란 IMF 시기에 실직한 개인을 의미하는데, 원자료(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보고서에는 실업자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밝혀져 있지 않다. 원자료에서 규정한 비경제활동가구원은 1년 내 구직활동을 하였던 실망실업자(*discouraged worker*), 배우자의 실업으로 이유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부가노동자(*added worker*), 그리고 IMF 이후 신규취업자 등이 포함된다. 한편,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는 IMF 이후 새로 취업하였거나 직장을 옮긴 개인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재취업자로 취급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28~29).

3) 예를 들어, 재취업일이 실직일보다 먼저인 사례.

4) 예를 들어, 실직일과 재취업일에 대한 정보에 따르면 실직기간이어야 하나 매달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는 취업이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를 가지고 있는 사례.

point) 으로 잡고 현재 계속 실업상태에 남아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이 시점까지의 기간으로 측정하였다. 한편, 재취업자의 취업형태에 관한 분석에서의 종속변수는 재취업한 직장에서의 근무형태이다. 위 변수는 재취업한 직장의 근무형태가 정규적인 경우 1의 값을 부여하고, 근무형태가 임시적이거나 일용적인 경우 0의 값을 부여하여 가변수로 전환하였다.

이 연구에 이용된 독립변수들은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사회·경제적 변수, 이전 사업장 관련 변수, 실직 사유 변수, 그리고 근로자를 위한 고용관련제도 변수 등 크게 4개의 하위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경제적 변수들은 성, 연령, 결혼 여부, 가구주 여부, 교육수준, 가구소득, 그리고 이전 직종 변수로 구성된다. 교육수준의 경우 연속변수로 전환시켜 측정하였다. 결혼 여부는 기혼, 미혼, 기타로 나누어 측정하였는데, 기타는 별거, 이혼, 사별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구주 여부는 가구주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원자료의 정보를 가구주일 경우 1의 값을 부여하고, 가구주가 아닐 경우 0의 값을 부여하여 가변수로 변환하여 측정하였다. 개인의 소득이나 임금수준 변수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자료(*missing*)가 너무 많아 가구 월평균 소득변수를 대신 활용하였다. 이전 직종변수는 원자료의 9가지 범주를 관리·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생산직, 단순노무직 등의 5가지 범주로 재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사업장 관련 변수는 이전직장의 업종, 근무형태, 그리고 사업장 규모 변수를 포함한다. 이전직장의 업종변수는 원자료의 20개 범주를 1차 산업, 제조업, 전기·가스·건설업, 서비스업, 운수·창고업, 금융·보험업 등의 6개 범주로 재구성하였고, 직장의 근무형태는 정규직, 임시·비정규직, 일용직 그리고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종사자를 의미하는 비임금근로자의 범주로 재구성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사업장규모는 5인 미만, 5인 이상 50인 미만, 50인 이상 300인 미만, 그리고 300인 이상 등의 4가지 범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한편 실직이유(사유)는 개인사유, 정리해고나 권고사직, 기업의 폐업이나 도산, 일감부족, 그리고 기타의 5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에 대한 노동 정책 및 제도의 영향력을 보기 위해 구직활동 신청 여부,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참여 여부 및 법정퇴직금 존재 여부 등 3개의 변수를 활용하였다.⁵⁾ 구직활동 신청 여부와 법정퇴직금 존재 여부는 ‘신청했다’와 ‘신청 안했다’ 그리고 ‘존재했다’와 ‘존재하지 않았다’의 가변수로 구성하였으며,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참

여 여부는 ‘참여’와 ‘미참여’의 범주와 ‘기타’(모르겠다 등)의 범주로 구성하였다.

3) 분석방법

이 연구는 빈도분석, 교차분석, 생존분석 및 로짓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속성을 소개하기 위해 연구대상을 실직상태에 있는 미취업자와 실직상태를 탈피한 재취업자로 구분하여 그에 대한 빈도, 평균, 중간값 등의 특성을 기술하였고, 독립변수들과의 교차분석을 통해 변수간 관계에 따른 특성을 기술하였다. 이 연구는 생존분석방법(*survival analysis* 혹은 *event history analysis*)을 이용하여 실직기간의 변화에 따른 실업상태로부터의 탈피율의 변화와 재취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생존분석에서는 실업상태로부터의 탈피율의 변화를 보기 위해 생존표분석(*life table analysis*)을 사용하였고 재취업률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예측력을 보기 위해 Accelerated Failure Time 모델에 의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참고로 분석에 사용된 Weibull 모델의 기본 모형과 생존밀도함수(*survivor density function*)는 다음과 같다. 6)

$$\text{Log } h(t) = \mu + \alpha \log t + \beta_1 x_1 + \beta_2 x_2 + \dots + \beta_k x_k$$

$$S_i(t) = \exp \{ -[t e^{-\beta x_i}]^{1/\sigma} \}$$

이 연구는 실업상태로부터의 탈피율에 대한 보다 다양한 분석을 위해 전체연구대상을 장기실직자와 단기실업자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장기실업자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실업기간이 12개월 이상 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고, 단기실업자는 조사시점 기

5) 실업실태조사에는 각종 실업대책과 관련하여 상당히 많은 변수들이 이용되었다(예를 들어, 실업급여 수급여부 및 기간, 직업훈련 여부 및 기간, 공공근로사업 참여여부 및 기간 등). 그러나 실업대책과 관련된 이러한 변수들은 실망스러운 정도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사례들(*missing*)이 많아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처럼 자료의 한계로 인해 제한된 변수만을 가지고 정부의 실업대책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일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6) Accelerated Failure Time 모델과 Weibull 모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Allison (1995) 을 참고할 것.

준 실직한 지 12개월이 되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아울러 장기실업자와 단기실업자 모두를 포함하는 자료를 분석하여 그 결과의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할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취업자의 취업형태에 대한 분석은 전체 연구대상자 중 재취업한 자들만으로 대상으로 이항 로짓 회귀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4) 연구질문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들을 갖는다.

첫째, 실업자의 각 시간대에서 재취업의 가능성은 어떤 모습을 갖는가?

둘째, 실업자의 재취업까지의 실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셋째, 재취업자는 어떤 형태(업종, 직종, 근무형태, 기업규모)의 재취업을 하고 있는가?

넷째, 재취업자의 취업형태(정규직 대 비정규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 질문을 기초로 연구대상을 단기실업자와 장기실업자로 나누어 세분화된 분석을 수행해 보고자 한다.

4. 연구결과

1) 연구대상에 대한 기술적 분석

연구 총 대상자 3,016명 중에서 실업기간이 12개월 이상 되는 장기실업자는 415명, 실업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단기실업자는 2,016명이었다. 전체 실업자 가운데 1998년 9월 현재 재취업한 사람의 수는 716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23.7%이며, 장기실업자와 단기실업자 중 재취업한 사람의 수는 각각 129명(33.1%)과 587명(22.6%)이었다.

〈표 1〉은 연구대상자들의 실업기간, 연령, 실업자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을 정리한 것이다. 조사 시점까지의 연구대상자들의 평균 실업기간은 275.29일이고 중간 실업기간은 184일이었다. 이러한 실업기간은 미취업자의 실업기간이 1998년 9월 시점에서 단절(*censoring*)된 것으로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전체 연구대상자 중 재취업한 사람들의 평균 실업기간은 379.19일이고 중간 실업기간은

153일이었으며, 상당히 정적으로 편포되어 있는데 이는 장기실업자들에 의한 영향력 때문이다. 7) 연구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37.88세이고 중간 연령은 36세인데, 전체실업자, 장기실업자, 단기실업자의 세 집단 모두에서 미취업자에 비해 재취업자의 평균 및 중간 연령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연구대상자의 가구 월 평균 소득은 평균 72.74만 원이고 중간값은 60만 원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자들은 미취업자들(64.57만 원) 보다 높은 평균 소득(95.58만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는 연구대상자들의 성별, 결혼 여부, 가구주 여부, 교육수준, 이전직장의 업종, 이전직장의 직종, 근무형태 및 종업원 규모, 실직사유, 구직등록 여부, 고용보험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 연속 변수

단위 : 일, 년, 만 원/월

변수	구 분	단기실업자 (n=2,601)			장기실업자 (n=415)			전체실업자 (n=3,016)		
		재취업자	미취업자	합 계	재취업자	미취업자	합 계	재취업자	미취업자	합 계
실업 기간	Mean	142.81	164.99	159.98	1454.82	791.91	997.97	379.19	242.94	275.29
	SD	88.15	99.94	97.83	1665.33	568.11	1083.51	870.33	302.60	502.81
	Median	122.00	153.00	153.00	730.00	608.00	639.00	153.00	184.00	184.00
연령	Mean	36.60	38.18	37.82	37.05	38.77	38.24	36.60	38.26	37.88
	SD	11.56	12.06	10.77	13.30	12.58	11.96	11.56	12.22	12.05
	Median	35.00	37.00	37.00	35.00	37.00	36.00	35.00	37.00	36.00
가구 소득	Mean	95.58	64.73	71.85	110.62	63.49	78.20	95.58	64.57	72.74
	SD	75.82	84.88	84.86	60.16	72.11	83.87	75.82	82.14	82.35
	Median	80.00	50.00	60.00	100.00	50.00	60.00	80.00	50.00	60.00

7) 이는 연구대상에 5년 이상(실업기간 1,825일 이상)의 장기실업자와 10년 이상(실업기간 3,650일 이상)의 장기 실업자가 각각 16명씩 모두 32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장기 실업기간을 가진 사람의 실업기간은 무려 7,579일이나 되며, 그 사람의 실직일은 1977년 12월이다. 이들 장기 실업자의 대부분은 여성이며, 이들은 1998년에 와서 재취업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장기실업과 관련한 한 선행연구는 여성의 실업기간이 남성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단기화되고 단절되는 현상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최화정, 1998).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의 결혼 등의 이유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유출된 현상을 반영하는 결과인데, 이 연구의 분석자료로 활용된 실업실태조사에는 이러한 유출현상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연구는 원자료의 정보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위의 특별한 사례들(outliers)도 분석에 포함시켰다.

가입 여부, 법정퇴직금 존재 여부 등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연구대상자들의 성별을 살펴보면 전체의 67.8%인 2,042명이 남성이며, 32.2%인 970명이 여성이다. 장기 실업자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여성의 비율(39.8%)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 중 기혼자는 1,827명(60.9%)이고 미혼자는 968명(32.3%)이며 별거, 이혼, 혹은 사별한 사람의 수는 205명(6.8%)이다. 재취업자의 경우 기혼자의 비율(67.3%)이 미취업자의 기혼자 비율(58.7%)에 비해 다소 높다. 한편 실업자의 가구주 여부는 가구주가 53.7%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장기실업자의 경우, 전체실업자와 다르게 비가구주의 비율(59.4%)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의 학력 분포를 보면, 고졸 학력자가 49.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중졸(15.0%), 초등졸(13.7%), 대졸(12.5%)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이전 직장의 업종분포는 서비스업이 전체의 41.2%로 가장 많고, 제조업과 건설·전기업은 각각 26.8%와 2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직종에서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관리전문직 19.5%, 서비스직 20.3%, 단순노무직 22.6%, 생산직 24.1%, 사무직 1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의 이전 근무형태를 보면, 정규직이 1,855명으로 전체의 61.6%로서 연구대상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안정된 상태에서 직업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인식케 한다. 임시직은 10.8%, 일용직은 16%, 비임금근로자는 11.6%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이전 직장의 규모를 보면, 46%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직장에서 근무하였고, 27.2%가 5인 미만의 직장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실업자의 실직사유를 보면, 개인사유가 전체의 26.2%, 정리해고가 17.8%, 파산 및 폐업이 24.1%, 일감부족이 22.8%, 기타가 9.2%로 정리해고, 파산 및 폐업, 일감 부족과 같은 고용과 관련된 구조적인 이유가 64.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를 위한 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변수들의 특성을 보면, 전체대상자 중 실직 후 구직등록을 한 사람은 645명으로 21.5%에 불과하고, 이전 직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22.7%밖에 되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장기실업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실업과 관련된 정부의 고용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등록과 고용보험가입이 필수적임을 감안할 때, 실업자의 이처럼 낮은 수준의 구직등록률과 고용보험가입률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회안정망의 혜택이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이전 직장의 법정퇴직금 존재 여

부를 보면, 전체실업자 중 31.3%, 단기실업자 중 31.3%, 장기실업자 중 32.4%가 법정퇴직금이 존재하는 직장에서 근무했음을 보여준다.

〈표 2〉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 범주변수

변 수		단기실업자			장기실업자			전체실업자		
		채취업자	미취업자	합 계	채취업자	미취업자	합 계	채취업자	미취업자	합 계
성 별	남 자	415 (70.8)	1,377 (68.5)	1,792 (69.0)	53 (41.1)	197 (68.9)	250 (60.2)	415 (70.8)	1,574 (68.5)	2,042 (67.8)
	여 자	171 (29.2)	634 (31.5)	805 (31.0)	76 (58.9)	89 (31.1)	165 (39.8)	171 (29.2)	723 (31.5)	970 (32.2)
결 혼	기 혼	391 (67.3)	1,182 (59.0)	1,573 (60.8)	92 (71.3)	162 (56.8)	254 (61.4)	391 (67.3)	1,344 (58.7)	1,827 (60.9)
	미 혼	159 (27.4)	679 (33.9)	838 (32.4)	27 (20.9)	103 (36.1)	130 (31.4)	159 (27.4)	782 (34.1)	968 (32.3)
	기 타	31 (5.3)	144 (7.2)	175 (6.8)	10 (7.8)	20 (7.0)	30 (7.2)	31 (5.3)	164 (7.2)	205 (6.8)
가구주	가구주	343 (58.5)	1,109 (55.3)	1,452 (56.0)	42 (32.6)	126 (44.2)	168 (50.6)	343 (58.5)	1,235 (53.7)	1,620 (53.7)
	비가구주	243 (41.5)	897 (44.7)	1,140 (44.0)	87 (67.4)	159 (55.8)	246 (59.4)	243 (41.5)	1,056 (45.9)	1,386 (46.3)
교육 수준	무 학	9 (1.5)	52 (2.6)	61 (2.3)	2 (1.6)	4 (1.4)	6 (1.4)	9 (1.5)	56 (2.4)	67 (2.2)
	초등졸	71 (12.1)	287 (14.3)	358 (13.8)	21 (16.3)	34 (11.9)	55 (13.3)	71 (12.1)	321 (14.0)	413 (13.7)
	중졸	84 (14.3)	309 (15.4)	393 (15.1)	17 (13.2)	42 (14.7)	59 (14.2)	84 (14.3)	351 (15.3)	452 (15.0)
	고졸	313 (53.4)	964 (47.9)	1,277 (49.1)	56 (43.4)	144 (50.3)	200 (48.2)	313 (53.4)	1,108 (48.2)	1,477 (49.0)
	전문대졸	43 (7.3)	136 (6.8)	179 (6.9)	16 (12.4)	22 (7.7)	38 (9.2)	43 (7.3)	158 (6.9)	217 (7.2)
	대졸	64 (10.9)	255 (12.7)	319 (12.3)	17 (13.2)	40 (14.0)	57 (13.7)	64 (10.9)	295 (12.8)	376 (12.5)
	대학원졸	2 (0.3)	10 (0.5)	12 (0.5)	- (-)	- (-)	- (-)	2 (0.3)	10 (0.4)	12 (0.4)

〈표 2〉 계 속

변 수	단기실업자			장기실업자			전체실업자			
	재취업자	미취업자	합 계	재취업자	미취업자	합 계	재취업자	미취업자	합 계	
업 종	1차 산업	8 (1.4)	21 (1.0)	29 (1.1)	3 (2.3)	7 (2.4)	10 (2.4)	11 (1.5)	28 (1.2)	39 (1.3)
	제조업	204 (34.9)	488 (24.4)	692 (26.7)	35 (27.1)	77 (26.9)	112 (27.0)	239 (33.5)	565 (24.7)	804 (26.8)
	건설, 전기	89 (15.2)	514 (25.6)	603 (23.3)	12 (9.3)	55 (19.2)	67 (16.1)	101 (14.1)	569 (24.8)	670 (22.3)
	서비스	246 (42.1)	806 (40.2)	1,052 (40.6)	68 (52.7)	122 (42.7)	190 (45.8)	314 (44.0)	928 (40.5)	1,242 (41.3)
	운수, 창고	31 (5.3)	119 (5.9)	150 (5.8)	4 (3.1)	14 (4.9)	18 (4.3)	35 (5.6)	133 (5.8)	168 (5.6)
	금융, 보험	7 (1.2)	56 (2.8)	63 (2.4)	7 (5.4)	11 (3.8)	18 (4.3)	14 (2.7)	67 (2.9)	81 (2.7)
직 종	관리전문	116 (19.8)	396 (19.7)	512 (19.7)	18 (14.0)	57 (20.0)	75 (18.1)	134 (18.7)	453 (19.7)	587 (19.5)
	사 무	76 (12.9)	262 (13.0)	338 (13.0)	26 (20.2)	42 (14.7)	68 (16.4)	102 (14.2)	304 (13.2)	406 (13.5)
	서비스	119 (20.3)	402 (20.0)	521 (20.1)	27 (20.9)	63 (22.1)	90 (21.7)	146 (20.4)	465 (20.3)	611 (20.3)
직 종	단순노무	126 (21.5)	465 (23.1)	591 (22.8)	23 (17.8)	67 (23.5)	90 (21.7)	149 (20.8)	532 (23.2)	681 (22.6)
	생 산	150 (25.6)	485 (24.1)	635 (24.5)	35 (27.1)	56 (19.6)	91 (22.0)	185 (25.8)	541 (23.6)	726 (24.1)
근무 형태	정규직	383 (65.5)	1,231 (61.2)	1,614 (62.1)	77 (59.7)	164 (57.5)	241 (58.2)	460 (64.4)	1,395 (60.7)	1,855 (61.6)
	임시직	65 (11.9)	199 (9.9)	264 (10.2)	20 (15.5)	42 (14.7)	62 (15.0)	85 (11.9)	241 (10.5)	326 (10.8)
	일용직	59 (10.1)	367 (18.2)	426 (16.4)	13 (10.1)	43 (15.1)	56 (13.5)	72 (10.1)	410 (17.8)	482 (16.0)
	비임금	78 (13.3)	215 (10.7)	293 (11.3)	19 (14.7)	36 (12.6)	55 (13.3)	97 (13.6)	251 (10.9)	348 (11.6)

〈표 2〉 계속

변 수		단기실업자			장기실업자			전체실업자		
		재취업자	미취업자	합 계	재취업자	미취업자	합 계	재취업자	미취업자	합 계
종업원 수	5인 미만	167 (29.6)	512 (26.4)	679 (27.1)	38 (30.4)	71 (25.9)	109 (27.3)	205 (29.8)	583 (26.4)	788 (27.2)
	5~49인	267 (47.3)	900 (46.4)	1,167 (46.6)	52 (41.6)	116 (42.3)	168 (42.1)	319 (46.3)	1,016 (45.9)	1,355 (46.0)
	50~299인	87 (15.4)	314 (16.2)	401 (16.0)	17 (13.6)	59 (21.5)	76 (19.0)	104 (15.1)	373 (16.9)	477 (16.4)
	300인 이상	43 (7.6)	212 (10.9)	255 (10.2)	18 (14.4)	28 (10.2)	46 (11.5)	61 (8.9)	240 (10.8)	301 (10.4)
실직 사유	개인사유	193 (33.2)	418 (20.8)	611 (23.6)	58 (45.3)	119 (41.6)	177 (42.8)	251 (35.3)	537 (23.4)	788 (26.2)
	정리해고	80 (13.7)	427 (21.3)	507 (19.6)	5 (3.9)	22 (7.7)	27 (6.5)	85 (12.0)	449 (19.6)	534 (17.8)
	파산, 폐업	156 (26.8)	496 (24.7)	652 (25.2)	17 (13.3)	54 (18.9)	71 (17.1)	173 (24.4)	550 (24.0)	723 (24.1)
	일감 부족	96 (16.5)	542 (27.0)	638 (24.6)	10 (7.8)	36 (12.6)	468 (11.1)	106 (14.9)	578 (25.2)	684 (22.8)
	기 타	57 (13.7)	126 (6.3)	183 (7.1)	38 (29.7)	55 (19.2)	93 (22.5)	95 (13.4)	181 (7.9)	276 (9.2)
구직 등록	등록	124 (21.2)	456 (22.7)	580 (22.4)	15 (11.6)	50 (17.6)	65 (15.7)	139 (19.4)	506 (22.1)	645 (21.5)
	미등록	462 (78.8)	1,551 (77.3)	2,013 (77.6)	114 (88.4)	234 (82.4)	348 (84.3)	576 (80.6)	1,785 (77.9)	2,361 (78.5)
고용 보험	가입	115 (22.4)	486 (24.2)	601 (23.9)	13 (12.1)	46 (16.2)	59 (15.1)	128 (20.6)	532 (23.2)	660 (22.7)
	미가입	259 (50.5)	968 (48.3)	1,227 (48.7)	68 (63.6)	147 (51.8)	215 (55.0)	327 (52.7)	1,115 (48.7)	1,442 (49.6)
	기 타	139 (27.1)	552 (27.5)	691 (27.4)	26 (24.3)	91 (32.0)	117 (29.9)	165 (26.6)	643 (28.1)	808 (27.8)
퇴직금	존재	174 (36.0)	524 (29.8)	698 (31.3)	35 (34.0)	80 (31.7)	115 (32.4)	209 (35.7)	604 (30.0)	813 (31.3)
	미존재	309 (64.0)	1,236 (70.2)	1,545 (68.9)	68 (66.0)	172 (68.3)	240 (67.6)	377 (64.3)	1,408 (70.0)	1,785 (68.7)
합 계		587 (22.6)	2,014 (77.4)	2,601 (100.0)	129 (31.1)	286 (68.9)	415 (100.0)	716 (23.7)	2,300 (76.3)	3,016 (100.0)

2) 실직 생존도와 재취업 위험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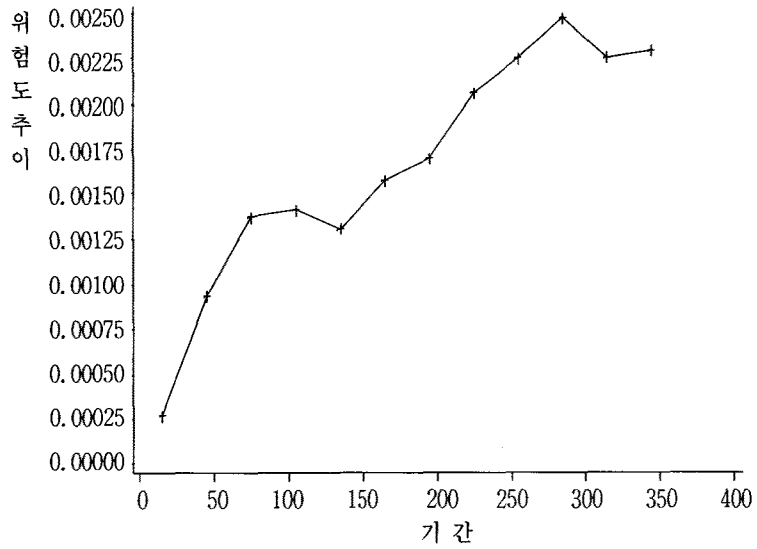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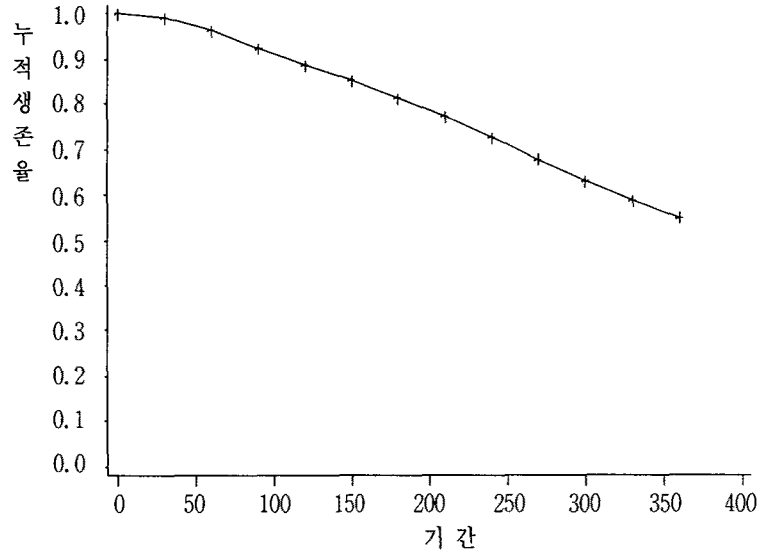
〈표 3〉은 최장 실직기간이 365일 미만인 단기실업자의 실업상태 지속 추이에 대한 누적생존율과 재취업위험도를 정리한 것이다.⁸⁾ 누적생존율은 단기실직자가 360일에 서 그 이상까지의 기간동안 재취업하지 못하고 실직상태로 남을 확률이 0.549임을 보여준다. 한편 실직기간 동안의 재취업 확률을 나타내는 재취업 위험도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전반적으로 위험도가 다소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즉 단기실직자들의 경우 실직 기간이 늘어날수록 어떠한 형태로든(임시직과 일용직 포함) 재취업의 가능성은 조금씩 더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누적생존율과 재취업 위험도의 추이를 나타내는 〈그림 1〉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표 3〉 누적 생존율 및 재취업 위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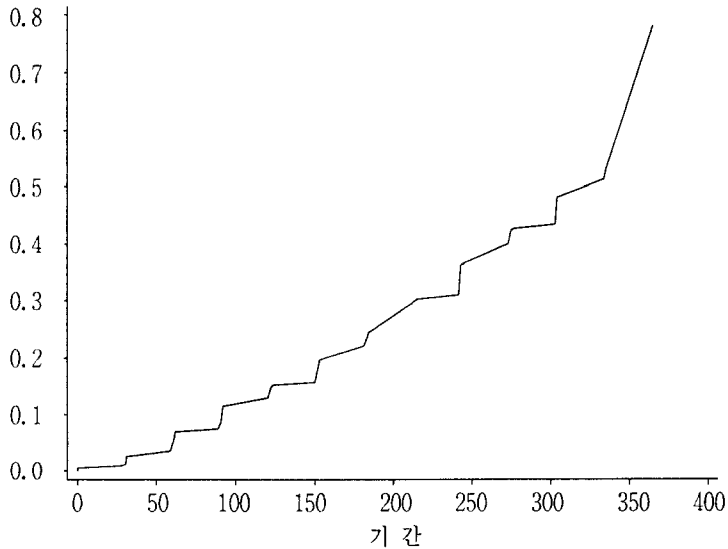
기 간		재취업자	censored	표본수	누적생존율	재취업위험도
0	30	21	67	2567.5	1.0000	0.000274
30	60	67	212	2407.0	0.9918	0.000941
60	90	86	221	2123.5	0.9642	0.001378
90	120	76	201	1826.5	0.9252	0.001416
120	150	60	191	1554.5	0.8867	0.001312
150	180	61	160	1319.0	0.8524	0.001578
180	210	54	187	1084.5	0.8130	0.001702
210	240	51	177	848.5	0.7725	0.002066
240	270	42	136	641.0	0.7261	0.002258
270	300	31	197	432.5	0.6785	0.002478
300	330	16	118	244.0	0.6299	0.002260
330	360	8	98	120.0	0.5886	0.002299
360	-	14	49	38.5	0.5494	-

8) 장기실업자와 전체실업자에 대한 누적생존율과 재취업위험도는 지면상 보고하지 않는다. 이들에 대한 누적생존율과 재취업위험도는 7,579일까지 보고되어야 함으로 그 양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 분석의 각주에서 언급하였듯이, 5년 이상의 장기실업자들(outliers)로 인해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이 다소 왜곡될 수 있다.

〈그림 1〉 누적생존율과 재취업 위험도 추이



〈그림 2〉 시간의 변화에 따른 negative log survival density function의 추이



3) 실업기간에 대한 Weibull 모델 분석

이 연구에서는 실업자의 재취업까지의 실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Accelerated Time Failure 모델을 비교한 후, 최종적으로 Weibull 모델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⁹⁾ 〈그림 2〉는 재취업위험도 그림분석의 결과로, 이 그림은 시간의 변화에 따른 negative log survival density function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데, 위험도가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포괄하고 있는 Weibull 모델의 분포와 거의 일치한다.

9) 모수적 생존분석모델의 Log-normal, Weibull, Exponential, 그리고 Generalized Gamma의 4가지 주요 모델로 분석하여 log-likelihood 값을 비교할 경우, Log-normal 모델(-970.93)과 Weibull 모델(-980.54), 그리고 Generalized Gamma 모델(-970.69)의 값들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며, 그 중 Log-normal 모델이 좀더 적합한 것으로 보여진다(Exponential: -1038.00). 그러나 이러한 모델간의 실증적인 차이점(empirical discrimination)을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에 생존분석 학자들(Allison, 1995: 90)의 제안대로 재취업위험도의 그림(graphic)을 이용한 진단방법(graphical diagnostics)을 활용한 결과, 이 자료의 재취업위험도는 시간의 변화와 함께 점차 한 방향(monotonic)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Weibull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실업기간에 대한 Weibull 모델 분석 결과

변 수	단기실업자		장기실업자		전체실업자	
	계 수	SE	계 수	SE	계 수	SE
연 령	0.022***	0.004	0.034**	0.009	0.042***	0.006
교육년수	0.007	0.012	0.008	0.026	0.030#	0.017
가구 월평균 소득	-0.002***	0.001	-0.003**	0.001	-0.004***	0.001
성 (여성)	-0.300	0.088	0.174	0.204	-0.033	0.125
가구주 여부 (가)	-0.244**	0.092	-0.726***	0.201	-0.745***	0.128
결혼여부	***					
기 혼	-0.358***	0.186	-0.070	0.217	-0.256*	0.128
기 타	-0.252	0.186	-0.327	0.332	-0.136	0.240
(미 혼)	-	-	-	-	-	-
업 종	**				#	
1차산업	-0.756#	0.402			-0.696	0.543
제조업	-0.375	0.287			-0.468	0.349
건설, 전기	-0.044	0.299			-0.150	0.362
서비스	-0.333	0.288			-0.491	0.345
운수, 창고	-0.123	0.319			-0.138	0.403
(금융, 보험)	-	-			-	-
직 종			#		*	
관리전문직	0.009	0.098	0.609**	0.237	0.137	0.139
사무직	-0.094	0.113	0.169	0.205	0.065	0.158
서비스직	0.087	0.116	0.386*	0.192	0.269#	0.160
단순노무직	-0.188#	0.101	0.100	0.182	-0.247#	0.134
(생산직)	-	-	-	-	-	-
근무형태						
정규직	-0.131	0.127			-0.510#	0.166
임시직	-0.170	0.145			-0.457	0.188
비임금 근로자	0.457	0.448			-0.162	0.667
(일용직)	-	-			-	-
직장크기			#		**	
5인 미만	-0.265#	0.148	-0.172	0.226	-0.288**	0.188
5인~49인	-0.250#	0.130	-0.238	0.190	-0.114**	0.165
50인~299인	-0.242#	0.134	0.206	0.213	0.830	0.175
300인 이상	-	-	-	-	-	-

〈표 4〉 계속

변 수	단기실업자		장기실업자		전체실업자	
	계 수	SE	계 수	SE	계 수	SE
실직이유	*		***		***	
정리해고	0.215#	0.100	-0.308	0.311	-0.417**	0.142
파산, 폐업	0.154*	0.088	-0.837***	0.204	-0.555***	0.122
일감 부족	0.319**	0.110	-0.512*	0.249	-0.293	0.152
기타 (개인적 사유)	-	-	-	-	-	-
구직등록 (가)	0.002	0.078	-0.275	0.187	-0.181#	0.107
법정퇴직금 (가)	-0.137#	0.078	-0.121	0.149	-0.150	0.155
고용보험가입여부						
미가입	-0.129	0.095	0.203	0.202	0.059	0.130
모름 (가입)	-0.017	0.103	0.198	0.227	0.001	0.143
상수	6.477***	0.416	6.977***	0.569	7.287***	0.525
σ (scale)	0.608	0.025	0.507	0.040	0.912	0.031
Log-Likelihood	-980.544		-141.965		-1303.610	
사례수	2,601		415		3,016	

주 : # p<0.10, * p<0.05, ** p<0.01, *** p<0.001

〈표 4〉는 Weibull 모델에 기초하여 실업자의 실직일부터 실업탈피일(재취업일)까지의 실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이다.¹⁰⁾ 먼저 실업자들의 재취업까지의 기간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각 모델의 σ (scale) 값을 비교해 보면, 연구대상자 모두를 포괄한 모델에서는 0.912이고, 단기실업자 모델에서는 0.608, 그리고 장기실업자 모델에서는 0.5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실업자의 재취업위험도가 증가의 폭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장기실업자의 경우 재취업위험도는 점차 미미한 정도에서 증가하고 단기실업자의 경

10) 그러나 장기실업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의 경우, 이전직장의 업종 변수와 이전직장에서의 근무 형태 변수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사례들이(missing value) 많음으로 인해 thin cell 등이 발생하고 모델을 불안정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모델에서 제외하였다.

우에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전반적으로 미미한 정도로 증가하기는 하나 그 증가의 폭이 장기실업자의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그림 1>의 누적생존율과 재취업위험도의 변화 추이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다.

연구대상자 모두를 포괄하여 분석한 결과에 기초해 각 변수의 예측력을 살펴보면, 연령, 가구 월 평균 소득, 가구주 여부, 결혼 여부, 이전 직장에서의 직종 및 직장 규모, 실직이유 등의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우선 인구·사회·경제학적인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연령이 많아질수록 재취업까지의 기간이 길어지고, 가구 월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재취업까지의 기간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에서 나타난 이러한 결과는 이 분석에서 취업경험이 전혀 없었던 대학 졸업자들이 연구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취업 경험이 있는 실업자의 연령과 재취업 가능성의 관계는 노령실업자일수록 재취업 확률이 감소된다는 외국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가구 월 평균 소득의 결과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가구 구성원들의 재취업까지의 실업기간이 보다 짧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실업자의 성별과 교육수준은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로 파악되었다. 이는 IMF라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남녀나 교육수준을 불문하고 모든 실업자들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가구주의 재취업까지의 기간은 비가구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혼자의 재취업까지의 기간이 미혼자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구주와 기혼자의 재취업까지의 기대실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이유는 이들의 직업경험과 같은 취업 자원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거나, 가구 생존에 대한 책임감 등 가구주와 기혼자의 심리학적인 상태 등의 변수들과 복합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 대한 실질적인 가능성은 보다 구체적인 후속 연구에 의해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장기실업자의 경우, 위의 결혼 유무변수는 아무런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갖지 않았다.

이전 업종의 경우, 단기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만 전반적인 업종 차이의 유의미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금융·보험의 업종에 종사했던 실업자들의 재취업이 다른 업종에서 종사했던 실업자들보다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IMF 이후 금융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의 결과로 인식할 수 있으며, 동시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임금을 받던 사람들은 동일 수준의 임금을 제공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새로운 직장을 급하게 찾지 않고 기다리며 직장을 탐색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중임금 효과(reservation wage effect)의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이전의 직종은 연구대상자 모두를 포괄한 분석에서는 전반적으로 유의미하고, 장기실직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marginal한 수준($p < 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생산직종에 종사했던 실업자의 재취업까지의 기대실업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고, 장기실업자의 경우, 관리전문직과 서비스직종에 근무했던 실업자의 재취업까지의 기간이 생산직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직과 단순노무직종에 근무했던 실업자의 재취업까지의 실업기간이 상대적으로 보다 짧은 것은 실업자의 재취업이 가구의 생존의 유지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이들이 과연 어떠한 형태로 재취업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연구의 제 4 장)이 필요하다. 근무형태에 따른 재취업까지의 실업기간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일용직에 종사했던 실업자의 재취업까지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영향력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미성은 없다. 한편, 연구대상자 모두를 포괄한 이전 직장의 규모에 따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직장의 규모 변수는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5인 미만 및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했던 실업자들의 재취업까지의 기간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했던 실업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보호 체계와 상대적으로 높은 의중임금이 재취업의 가능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이들의 취업 형태와 내용을 중심으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연구의 제 4 장)에 따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실업자의 이직사유에 따른 영향력을 보면, 연구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과 단기실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장기실업자들의 이직사유 변수의 영향력이 보다 강하게 반영되어졌기 때문이다.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과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은 개인적 사유로 실직한 사람들의 재취업까지의 기간이 다른 이유에서 실직한 사람들의 재취업까지의 기간에 비해 길고, 파산이나 폐업 및 정리해고, 일감부족으로 실직했던 사람들의 실업기간이 보다 짧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에 반해 단기실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개인적 사유로 실직한 사람들의 재취업까지의 기간이 보다 짧고 파업과 폐업 및 일감부족 등으로 실

직한 사람들의 재취업까지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실직자나 단기실직자나 하는 실직자 특성에 따라 이직사유가 그들의 재취업까지의 기간에 매우 다른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실직한 사람들의 재취업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실업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구직등록 여부, 고용보험가입 여부, 그리고 법정퇴직금 유무 변수 모두가 재취업까지의 기대실업기간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 모두를 포괄한 분석에서 구직등록을 한 사람이 재취업까지의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고, 단기실업자의 분석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으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법정퇴직금 여부는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법정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실직자들의 재취업까지의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전직장의 고용보험가입 여부에서도 대상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고 통계적인 유의미성도 없었다. 단기실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에서 일했던 실직자들에 비해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직장에서 일했던 실직자들의 재취업까지의 기간이 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기실직자와 연구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결국 실업정책과 관련된 변수들에 대한 이 연구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러한 실업관련 정책들은 실업자의 재취업까지의 실업기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앞서 기술적 분석에서 언급했듯이, 연구대상 중 구직등록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실업자의 수치는 그렇지 않은 실업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실업자가 구직등록을 하였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연구의 결과는 정부의 각종 실업대책이 실업자의 재취업 여건을 조성하는데는 그리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법정퇴직금과 같은 생활안정정책들도 실업자의 재취업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재취업자의 재취업 형태에 대한 기술적 분석

〈표 5〉는 실직 후 재취업한 사람들의 업종, 직종, 근무형태, 그리고 직장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재취업자 중 서비스업에 재취업한 사람들의 수는 412명으로 전체의 57.5%에 이르며, 제조업, 건설 및 전기업에 재취업한 사람들의 비율은 각각 19.8%와 10.3%로 나타났다. 그러나 1차 산업이나 금융 및 보험업에 재취업한 사람

〈표 5〉 재취업자의 재취업 형태에 대한 기술적 분석

	단기실업경험 재취업자		장기실업경험 재취업자		전체 재취업자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업종						
1차 산업	19	3.2	4	3.1	23	3.2
제조업	124	21.1	18	14.0	142	19.8
건설, 전기	66	11.2	8	6.2	74	10.3
서비스	323	55.0	89	69.0	412	57.5
운수, 창고	40	6.8	2	1.5	42	5.9
금융, 보험	15	2.6	8	6.2	23	3.2
직종						
관리전문	83	14.1	14	10.9	97	13.5
사무	63	10.7	9	7.0	72	10.1
서비스	118	20.1	37	28.7	155	21.6
단순노무	212	36.1	51	39.5	263	36.7
생산	111	18.9	18	14.0	129	18.0
근무형태						
정규직	260	44.3	38	29.5	298	41.6
임시직	149	25.4	36	27.9	185	25.8
일용직	107	18.2	33	25.6	141	19.7
비임금	71	12.1	22	17.1	93	13.0
종업원수						
5인 미만	149	30.2	36	27.9	185	25.8
5~49	251	50.9	53	41.1	304	42.5
50~299	63	12.8	10	7.8	73	10.2
300인 이상	30	6.1	7	5.4	37	5.2

들의 수는 각각 23명으로 전체의 3.2%에 불과하다. 재취업한 업종에 따른 비율은 단기실업을 경험한 재취업자들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장기실업을 경험한 재취업자들 중 건설 및 전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의 비율(6.2%)은 단기실업을 경험한 재취업자와 전체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재취업자의 직종을 살펴보면, 실업경험기간에 상관없이 단순노무직에 재취업한 사람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아직도 기타 직종에 비해 단순노무직에 재취업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음을 보여준다. 또한 사무직에 재취업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이다. 재취업자들의 근무형태를 보면, 안정된 정규직에 재취업한 사람들의 비율이 41.6%에 불과해 실직 전 정규직에 종사하던 사람들의 수에 비해 그 수가 급격하게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장기실업을 경험한 재취업자들의 경우 정규직에 재취업한 사람들의 비율이 29.5%인 반면, 임시직 27.9%, 일시직 25.6%, 그리고 비임금근로자가 17.1%로 나타나, 실업기간이 길수록 정규직(full-time) 보다는 비정규직(part-time)에 재취업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연구대상자들의 재취업한 기업규모는 5인에서 50인 미만까지의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사람들이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되어 연구기간 동안 대기업의 구직활동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 재취업자 형태에 대한 Logistic Regression 모델 분석

〈표 6〉은 실직 후 재취업한 사람들의 재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로짓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분석의 독립변수들은 재취업 확률과 기대실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한 Weibull 모델에 사용된 독립변수들에 실업기간과 실업경험형태 변수를 포함하였다. 사실 이 연구의 대상자들은 단순히 실직과 재취업을 한번 단순하게 경험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많은 실업자들은 실직과 재취업을 반복하고 있으며, 취업, 실업, 재취업, 재실업, 그리고 다시 재재취업하는 사람들까지도 존재한다. 이 연구는 이렇듯 불안정한 취업형태를 가진 사람들이 연구기간 중 마지막으로 재취업한 직장의 형태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실업경험형태 변수를 분석에 포함하였다.¹¹⁾

〈표 6〉 재취업자 형태에 대한 Logistic Regression 모델 분석 결과

변 수	단기실업경험자		장기실업경험자		전체실업경험자	
	계 수	SE	계 수	SE	계 수	SE
연 령	-0.030	0.018	-0.015	0.078	-0.032*	0.016
교육년수	0.075	0.061	0.009	0.176	0.050	0.053
가구 월평균 소득	-0.001	0.001	0.004	0.006	-0.001	0.001
성 (남성)	-0.915*	0.364	0.928	1.15	-0.518 [#]	0.313
가구주 여부 (부)	-0.853*	0.388	1.689	1.334	-0.625 [#]	0.342
결혼여부						
기 혼	0.525	0.385	-0.744	1.353	0.508	0.342
기 타 (미 혼)	-0.378	0.748	-0.009	1.777	-0.191	0.640
-	-	-	-	-	-	-
업 종						
1차산업	-0.931	1.937			-1.902	1.785
제조업	0.123	1.428			-0.595	1.032
건설, 전기	-0.248	1.471			-1.262	1.074
서비스	0.003	1.423			-0.607	1.015
운수, 창고 (금융, 보험)	1.183	1.532			0.087	1.151
-	-	-			-	-
직 종	**				**	
관리전문직	1.131**	0.416	0.719	1.317	1.100**	0.377
사무직	1.272*	0.508	0.790	1.219	1.084*	0.438
서비스직	-0.378	0.464	0.907	1.246	-0.209	0.419
단순노무직 (생산직)	0.095	0.403	-2.175	1.562	0.072	0.367
-	-	-	-	-	-	-
근무형태	***				***	
정규직	1.638**	0.546			1.698***	0.510
임시직	0.157	0.650			0.233	0.594
비임금 근로자 (일용직)	1.105	2.279			1.308	2.351
-	-	-			-	-
직장크기			#			
5인 미만	0.634	0.586	-1.379	1.540	0.129	0.492
5인~49인	0.731	0.520	-2.516	1.308	0.219	0.431
50인~299인	0.092	0.547	0.350	1.244	0.143	0.456
300인 이상	-	-	-	-	-	-

<표 6> 계속

변 수	단기실업자		장기실업자		전체실업자	
	계 수	SE	계 수	SE	계 수	SE
실직이유						
정리해고	-0.207	0.400			-0.265	0.367
파산, 폐업	-0.592	0.350			-0.322	0.313
일감 부족	-0.668	0.440			-0.454	0.410
기 타	-0.178	0.513			0.267	0.428
(개인적 사유)	-	-			-	-
구직등록 (부)	0.271	0.310	2.591	1.798	0.46677	0.285
법정퇴직금 (부)	0.092	0.311	-0.926	1.039	0.248	0.269
고용보험가입여부	***		*		***	
미가입	-1.681***	0.370	-2.850*	1.358	-1.885***	0.344
모름	-1.633***	0.413	-0.963	1.597	-1.686***	0.381
(가 입)	-	-	-	-	-	-
실업기간	-0.001	0.001	-0.004	0.001	-0.001	0.001
실업경험형태						
IMF전 단기실업	-0.004	0.604			-0.077	0.565
IMF전 장기실업	-	-			-0.373	0.582
IMF후 단기실업	-0.251	0.486			-0.177	0.473
반복실업	-	-			-0.001	0.001
상 수	0.704		-3.274		0.004	
-2 log-likelihood	397.875		53.943		487.456	
Goodness of Fit	377.229		97.375		454.356	
X2	142.616		52.876		163.890	
사례수	587		129		716	

주 : # p<0.10 * p<0.05, ** p<0.01, *** p<0.001

11) 이 연구에 사용된 원자료는 1997년 10월부터 1998년 9월까지 연구대상자들의 경제활동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를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연구대상자들의 경제활동상태 변수와 실직일 및 재취업일 변수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실업자의 구직과 실직에 대한 패턴을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이러한 구분을 함에 있어서, 앞서 연구방법의 자료 장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세 변수간 모순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례들은 모두 제외하였다.

<표 7> 실업자의 구직과 실직에 대한 패턴

U→E	U→E (+1)	E→U	U→U	U→U (+1)	E→U→E	U→E→U	U→E→U→E	E→U→U
95	130	1,603	151	284	445	113	45	146

주 : U는 실직상태이고 E는 취업상태임. (+1)은 1년 이상의 장기실업자를 의미함.

〈표 6〉은 재취업을 한 사람들을 다시 단기실업경험자, 장기실업경험자, 그리고 전제실업경험자로 나누어 Logistic 회귀분석을 통해 각각에서 안정적인 취업을 하는 것(정규직)과 안정적이지 못한 재취업(비정규직, 임시직이나 일용직)을 하는 것을 예측하는 변수들이 무엇인가를 분석한 결과이다. 그러나 장기실업을 경험한 재취업자들의 경우, 이전직장의 업종, 이전직장에서의 근무형태, 이직 사유와 같은 변수들이 사례수의 적음으로 인해 thin cell 등이 발생하고 모델을 불안정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실업경험형태변수는 모두가 한 범주만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재취업자들 가운데 단기실업 경험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은 성, 가구주 여부, 이전직장에서의 직종과 근무형태, 그리고 고용보험가입 여부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정규직의 근무형태에서 재취업할 odds가 여성의 0.40배 정도이고, 가구주가 아닌 사람이 정규직의 근무형태에 재취업할 odds가 가구주인 사람이 재취업할 odds의 0.43배 정도이다. 성에 있어 남성의 정규직으로의 재취업 확률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많은 남성실업자들의 건설 일용직이나 임시직 등에 재취업하는 비중이 높은 것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여기에는 보다 심층적 분석이 요구된다. 가구주의 정규직으로의 재취업 가능성이 비가구주에 비해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취업 자본(직업경험 등)이 정규직으로의 재취업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전직종 변수의 영향력을 보면, 생산직종에 근무했던 사람에 비해 관리 전문직에 종사했던 사람이 정규직의 근무형태에서 재취업할 odds가

〈표 7〉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단순히 실업에서 취업한 사람들은 모두 225명이나, 실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사람들이 130명으로 12개월 이하의 실업기간을 가진 사람들(95명)보다 많다. IMF 기간중 실업한 사람들의 수는 1,603명으로 파악되었고, 연구기간중 계속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수도 435명이나 되었다. 실업자들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집단은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사람들 중 취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재실업한 UEU 형태와 EUEU 형태의 사람들인데, 그들의 수는 각각 113명과 146명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사람들 중 분석기간의 최종시점에 다행(?)스럽게 취업한 사람들(EUE와 UEUE 형태가 각각 445명과 45명)도 사실은 언제 다시 실직할지 모르는 위험집단이다. 이와 같은 실업자와 재취업자의 경제활동패턴에 대한 분석도 실업자의 재취업에 대한 좋은 연구주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성격과 자료가 충분치 않은 점(missing value의 과다) 등으로 인해 이러한 분석을 향후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한편, 이 절의 재취업 형태에 대한 Logistic 회귀분석은 재취업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표 7〉의 구분 중 재취업한 UE, UE(+1), EUE, 그리고 UEUE 형태의 반복실업 경험자만을 분석에 포함한다.

3.1배 크고, 그에 대한 사무직에 종사했던 사람의 정규직의 근무형태 재취업 odds는 3.57배인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전직장의 근무형태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일용직에서 근무했던 사람보다 정규직에 종사했던 사람이 정규직의 근무형태에서 재취업할 odds가 5.15배임을 보여줌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직장에서 근무했던 실업자가 실직 후에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에 재취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에서 근무했던 사람에 비해 가입하지 않은 직장에서 일했던 사람이 정규직의 근무형태로 재취업할 odds가 0.186배 정도로 낮고, 기타의 상황에 있는 사람이 정규직의 근무형태로 재취업할 odds 역시 0.195배 정도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업환경 속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실업자들이 실직 후 보다 안정된 직장이나 직업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고, 불안정한 직업 환경 속에서 일했던 실업자들은 다시 불안정한 환경의 직업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취업 형태에 대한 이러한 연속성은 분절된 노동시장 구조로 이해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징이 재취업 현상 속에서도 지속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이처럼 불안정한 직업 환경을 갖는 사람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한편, 장기실업을 경험하고 재취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변수만이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이전직장의 규모는 marginal한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 비해 가입하지 않았던 사람의 정규직의 근무형태로 재취업할 odds는 0.058배 정도 낮으며, 300인 이상의 대규모 직장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에 비해 5인 미만 혹은 50인 미만의 규모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정규직의 근무형태로 재취업할 odds가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실업자들도 고용보험제도 적용 및 큰 기업규모를 특징으로 하는 안정적 직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보다 안정적인 직장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업기간에 관계없이 재취업한 모든 대상자를 포괄한 분석의 결과에서는 연령, 이전직장에서의 직종, 이전직장에서의 근무형태와 이전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성과 가구주 여부 변수는 marginal한 수준($p < 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규직 근무형태로 재취업할 odds가 3.2%씩 감소되어짐을 보여주는데, 이는 일정 연

령 이상의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전직장의 변수는 단기실업을 경험한 재취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생산직에 비해 관리전문직 및 사무직에 종사했던 사람들의 정규직 근무형태의 재취업 odds가 매우 높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전직장의 근무형태도 정규직에 종사했던 사람이 정규직에 재취업할 odds가 비정규직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에 비해 높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들에 비해 가입하지 않았던 사람이나 기타 사람들이 정규직 근무형태에 재취업할 odds가 낮아, 단기실업경험 재취업자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재취업의 안정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위와 같은 분석의 결과는 무엇보다도 안정된 직종과 근무형태를 가졌던 사람들과 고용보험가입의 혜택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안정된 상태에서 재취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인구·사회학적인 변수들에서는 연령, 성, 가구주 여부가 안정된 형태의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이전의 안정된 직종과 근무형태가 재취업에서의 안정성으로 연결되며, 이전의 불안정한 직종과 근무형태가 재취업에서의 불안정성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안정된 배경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업상태에서 재취업의 과정으로 이행한다 하더라도 많은 불안정성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안정한 직업적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노동시장 개입의 측면과 복지제도 확대의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이 연구는 Weibull 모델과 Logistic 모델의 분석을 통해 실업자의 재취업까지의 기대실업기간과 재취업의 형태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파악해 보았다. 분석결과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실업자 중 61.6%가 비교적 안정된 형태(정규직)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근무했던 기업의 규모는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이 27.2%, 5인 이상에서 50인 미만의 소사업장이 46.0%로 상당수의 실업자가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 근무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정부에서 제공하는 실업대책과 관련하여, 실직 후 전체실업자 중

21.5%의 실업자만이 구직등록을 하였고, 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실업자는 22.7%밖에 되지 않았으며, 법정퇴직금이 존재하는 직장에 근무했던 실업자는 31.3% 정도였다. 정부의 각종 실업대책은 구직등록으로부터 시작되고, 현재 실업자의 실업기간 동안 생계보장의 핵심이 실업급여와 법정퇴직금이란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결과는 실업자에 대한 정부의 고용지원 정책이나 생활안정지원 정책이 매우 제한적임을 인식케 한다.

둘째, 연구기간 중 재취업한 사람의 수는 716명으로, 이는 전체실업자의 23.7%에 이른다. 또한 이들의 재취업위험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Weibull 분포(*distribution*)를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Weibull 모델의 분석 결과 가장 중요한 점은 대체로 안정적인 이전직종에 종사했던 실업자들이 불안정적인 직종에 종사했던 실업자들에 비해 오랜 기간 실업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안정적인 이전직종에 종사했던 실업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실업보험 등의 안정적 기제를 통해 상대적인 여유를 가지면서 직장을 탐색한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한편 이러한 분석에서 실업 관련 제도 및 정책 변수들의 예측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실업 관련 제도와 정책들이 재취업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넷째,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업자들이 과연 어떤 형태의 직장에 재취업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데, 이 연구는 로짓 회귀분석을 통해 비교적 안정된 직업환경 속에서 근무했던 실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형태의 직장에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고, 불안정 직종에 종사했던 실업자들은 다시 불안정한 임시직이나 일용직에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이전의 안정된 직종과 근무형태가 재취업의 안정성으로 연결되며, 반대로 불안정한 근무형태는 재취업에서의 불안정성으로 연결되어 취업구조의 순환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시간이 경과할수록 전체적인 재취업의 확률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장기실업을 경험한 재취업자일수록 정규직보다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에 종사할 확률이 높다.

이러한 우리나라 실업의 특징은 분절된 노동시장의 구조에서 기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방하남, 1998). 즉, 안정적 시장에서의 노동과 불안정한 시장에서의 노동이라는 분절적 구조는 고용안정, 임금, 근로조건, 기술의 차이와 그 차이의 심화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실업자들의 재취업의 형태에 상당한 영향력

을 가질 수 있다. 물론 IMF라는 경제위기 속에서 안정적인 직업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실직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불안정한 시장에 종사하던 실업자들의 재취업은 다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분절적 노동시장의 구조 속에서 불안정성에서 불안정성으로의 순환은 실직과 재취업의 과정에서 불안정적 환경 속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의 생활을 더욱 취약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러한 취약 집단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정망의 구축이다. 현재 실업자 중 정부의 사회안정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취약집단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문진영, 1998). 따라서 사회안전망의 결손지역에 놓여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포괄한 광범위한 대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마련과 실행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즉, 실업자의 생활안정 지원정책을 빈곤근로자층과 중하위소득근로자층 등으로 구분하여 이들에 대한 생활보장과 함께 세분화된 고용지원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대상의 특성에 맞는 생활보호, 실업자대부사업, 각종 긴급구호, 실업급여제도의 정비를 통해 그들의 기초생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함께 이러한 과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 전달체계의 구축도 필수적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1999: 268). 한편, 노동시장에서 안정된 일자리의 창출과 진입을 가능케 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획기적인 노동정책의 마련도 절실하다. 즉,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불안정한 시장에 종사하는 실업자들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직업훈련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동시에 이들 계층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창출과 공공근로사업의 내실 있는 확대, 그리고 광범위한 고용정보망의 확충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강철희·김교성·김진욱. 1999.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실업기간과 재취업에 관한 실증연구 : 모수적 생존모델(Log-normal Model)을 이용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37호, pp. 1~31.
- 류기철. 1999. “실업급여 수급 실직근로자의 재취업양상.” 《경제학연구》 47(1), pp. 71~97.
- 문진영. 1998. 3. “긴급제한, IMF 시대 - 고실업사태의 사회적 대안 - 저소득계층 실업자를 위한 실업부조제도의 도입.”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정책공청회.
- 방하남. 1998. “한국 실업구조의 특징과 정책방향.” 한국사회정책학회 1998학년도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pp. 5~36.
- 최화정. 1998. “남녀별 노동이동 패턴에 대한 연구: 경기침체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1999. 《실업실태 및 복지요구조사 보고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1. 《현행 실업대책 평가 및 개선방안》.
- Addison, J. & P. Portugal. 1984. “Advance Notice and Unemployment : New Evidence from the 1988 Displaced Worker Survey.”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45. pp. 645~682.
- Anderson, P. 1992. “Time-varying Effects of Recall Expectation, a Reemployment Bonus, and Job Counseling on Unemployment Durations.” *Journal of Labor Economics*. 10. pp. 99~115.
- Allen, S. 1984. “Trade Unions, Absenteeism and Exit-Voice.”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37. pp. 331~345.
- Allison, P. D. 1995. *Survival Analysis Using the SAS System : A Practical Guide*. Cary, NC : SAS Institute.
- Azariadis, C. 1975. “Implicit Contracts and Unemployment Equilibria.”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3. pp. 119~155.
- Bailey, M. 1974. “Wages and Employment Under Uncertain Demand.” *Review of Economic Studies*. 41. pp. 37~50.
- Belzil, C. 1995. “Unemployment Insurance and Unemployment over Time : An Analysis with Event History Data.”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7. pp. 113~126.
- Bulow, L. & L. Summers. 1986. “A Theory of Dual Labor Markets with Applications to Industrial Policy, Discrimination and Keynesian Unemployment.” *Journal of Labor Economics*. 4. pp. 377~414.

- Burgess, P. & S. Low. 1992. "Preunemployment Job Search and Advance Job Loss Notice." *Journal of Labor Economics*. 10. pp. 258~287.
- Carling, K., Edin, P., Harkman, A., & B. Holmund. 1996. "Unemployment Duration, Unemployment Benefits, and Labor Market Programs in Swede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59. pp. 313~334.
- Classen, K. P. 1977. "The Effect of Unemployment Insurance on the Duration of Unemployment and Subsequent Earning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 Review*. 30. pp. 438~444.
- Davidson, C. 1990. *Recent Developments in the Theory of Involuntary Unemployment*. W. E. Upjohn Institute.
- Doeringer, P. B. & M. J. Piore. 1971. *Internal Labor Markets and Manpower Analysis*. Lexington : Heath.
- Fairlie, R. W. & L. G. Kletzer, 1998. "Jobs Lost, Jobs Regained : An Analysis of Black/White Differences in Job Displacement in the 1980s." *Industrial Relations*. 37. pp. 460~477.
- Fallick, B. 1991. "Unemployment Insurance and the Re-employment Rate of Displaced Worker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3. pp. 228~235.
- Holen, A. 1977. "Effects of Unemployment Insurance Entitlement on Duration and Job Search Outcome."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 Review*. 30. pp. 445~450.
- Kats, L. F. & Meyer, B. D. 1990. "The Impact of The Potential Duration of Unemployment Benefits on the Duration of Unemploym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41. pp. 45~72.
- Lucas, R. E. 1972. "Expectations and the Neutrality of Money." *Journal of Economic Theory*. 4(2). pp. 103~124.
- McCall, B. 1997. "The Determinants of Full-Time Versus Part-Time Reemployment Following Job Displacement." *Journal of Labor Economics*. 15. pp. 715~734.
- Meyer, B. D. 1990. "Unemployment Insurance and Unemployment Spells." *Econometrica*, 58. pp. 757~782.
- Shaked, S. & J. Sutton. 1984. "Involuntary Unemployment as a Perfect Equilibrium in a Bargaining Model." *Econometrica*. 52. pp. 1351~1364.
- Thurow, L. G. 1975. *Generating Inequality*. New York : Basic Books.
- Yoon, B. J. 1990. "A General Model of Unemployment Duration." Paper presented in 제 외 한국인 경제학자 대회.

Unemployment Duration and Re-employment Pattern

An Analysis using Weibull Model and Logistic Regression Model

Kang, Chul Hee

(Ewha Womans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im, Kyo Seong

(Sejo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Little is known about unemployment duration and re-employment pattern.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unemployment duration and re-employment pattern using data by the 1998 national survey about the unemployed and their needs. A parametric survival model (Weibull model) is adopted to identify variables predicting unemployment duration. It is found that the data including people without unemployment insurance as well as people with unemployment insurance fit the Weibull model including the hazard distribution that the hazard of reemployment is increasing at a decreasing rate. Variables that affect unemployment duration are age, householdership, family income, size of prior employment organization, and cause of unemployment. In re-employment pattern,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are age, type of prior employment industry, prior employment pattern, and membership in unemployment insurance. This paper provides a basic knowledge about realities of unemployed individuals in the economic crisis period of Korea, identifies research areas for further research, and develop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unemployed.